



자연이 선물한 비경 19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청천 건너편 낯익은 바위에 물이 흐르면서 폭포를 이루 제주 숨은 비경을 선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아이 20만원 입양” 논란, 무엇이 불렀나

원 지사 “비난보다 도움 먼저”... 도, 대응방안 검토 미혼모 보호·지원실태 점검하고 자체 지원 마련키로

‘아이 입양 게시글’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 사회적 제도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혼모 지원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원정책과 입양과정에 구멍이나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이 입양 게시글’과 관련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방안과 입양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19

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사업,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등을 발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제시될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도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임신, 출산진료비) 6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의료비 지원 35만원(국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내 미혼모특

수치료비 32만3900원 ▷입양속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70만원(최대) 외에 미혼모부거점기관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 미혼모 심리치료,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관련해 산후조리비용과 병원비는 한정적으로 지원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전국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18일 페

이스북에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면서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다.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아울러 제도를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과태료 버티기에 쌓여가는 체납액

제주시 차량 과태료 100억 ↑ 금액기준 정리율 18.3% 그쳐

제주시 지역 자동차 소유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총 체납액이 9월 말 기준 3만6664건에 102억원(올해 14억원, 지난해도 88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이 2만8402건에 83억원, 정기검사 지연이 8262건에 19억원이다.

이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도 저조하다. 9월까지 총 5만509건에 126억원이 부과됐는데, 납부는 1만8429건에 23억원으로 금액 기준 정리율은 18.3%에 그친다. 과태료 처분에도 81.7%는 버티고 있는 셈이

다. 올해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도 39.4%로 절반을 밀도는 등 고질적인 체납이 여전한 상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10일까지 1만5000원이 부과되고 그 후에는 하루에 6000원씩 일반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영업용은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다.

제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국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도 나선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높아 정기검사 지연보다 체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 납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문이숙기자

제주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 접수

서귀포시 가정집서 발견 도 “정확한 종 확인 중”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제주도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19일 제주도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주택에서 수돗물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부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유충 3마리를 발견했다.

대상하수도본부는 이들 유충을 수거해 현미경으로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최근 문제가 됐던 ‘갈따구 유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유충 샘플을 국립생물과학원으로 보내 정확한 종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유충과 해당 주택에 대한 수질검사와 진행했지만 정상 기준치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례에 대비해 인근 정수장 및 배수시설에 대한 수질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백금숙기자

339명당 1개꼴... 커피전문점의 생존경쟁

제주, 업소당 평균 인구 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총 1865곳으로 9년새 4배 ↑

제주지역 커피전문점이 2011년도와 비교해 4배 가량 급증하면서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은 18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도내 커피전문점 수 471개와 비교하면 9년 만에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같이 제주지역에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도내 커피전문점 업소당 평균 인구수는 542명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339.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또한 강원도 지역도 391.1명의 업소당 인구수를 보이는 등 관광객 유

입이 많은 지역의 업소당 인구수가 적게 나타났다. 업소당 인구수는 부산이 75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650.0명), 인천(644.1명), 경남(599.7명), 경기(59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커피전문점 1865개 중 프랜차이즈는 220여 곳으로 약 12% 비율을 나타냈다. 도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에이바우트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스타벅스(24개), 투썸플레

이스(21개), 파스쿠쥬·이디야(20개), 메가커피(19개), 카페베네·피아모(17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 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창업률은 2016년 29.5%에서 2017년 27.3%, 2018년 14.3%로 크게 줄었다. 이는 도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업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뜨거웠던 창업 열기도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내 커피전문점 폐업률은 2016년 15.6%에서 2017년 13.7%, 2018년 14.1%로 창·폐업을 간 격차가 대폭 줄었다. 김현석기자

도민 사망원인 1위 ‘암’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집계됐다. 이어 자살,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사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39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도내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한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94.0명), 자살(28.1명), 심장 질환(24.3명), 폐렴(21.1명), 뇌혈관 질환(15.9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남이

327.3명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321.9명, 전북 3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대르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0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설치해 보세요!

각종행사장/개업식/집들이/야외휴게공간설치
주차장용/야외음식점 및 호텔 및 펜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 각종 천막 탁자 의자 판매 임대
몽골천막, 자바라천막, 창고형천막
- 각종행사 단체식사 주문 환영
한식, 일식, 양식 등

종합이벤트

한라기획

(주)카라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혹대지바베뉴전문)

대표 김 봉 근

- 사무실 : 744-6688 제주시 공방매길 116 (아라1동)
- FAX : 749-8668 • jejuhanla@daum.net
- H·P : 010-2623-6688